경북 지방선거 선거인 220만명 확정… 70대 이상 최다

포항시 19.16%, 구미·경산 순
남성 111만명, 여성 109만명
경북도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북지역 선거인 수를 지난 22일 기준 220만2861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111만1018명, 여성 109만184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7만10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 46만4156명, 50대 42만9774명, 40대 32만8330명, 30대 25만1278명, 20대 21만4275명, 18~19세 4만3991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42만2014명으로 전체의 19.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구미시 34만775명(15.47%), 경산시 23만1808명(10.52%) 순이었으며, 군 단위에서는 칠곡군이 9만9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1904명, 국내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선거권자는 2523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선거권자는 4814명이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명부 작성, 17일부터 1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20일부터 21일까지 누락자 구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선거권자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 위치 등 투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월 13일 이후 전입신고한 유권자는 기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인당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도지사, 시장·군수,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교육감 등 총 7장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공무원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유권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투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전남도, 고출력레이저 산업 키운다

총사업비 1620억, 3개 분야 구상
기업 50여 개사 참여 의향서 제출

고출력레이저 적용 산업현장.

전남도가 산업용 고출력레이저 원천기술 확보와 기업 집적화를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한국광기술원, 레이저 관련 기업 등의 자문을 거쳐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전남도는 총사업비 1620억원을 투입, 3개 분야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출력 레이저는 우주·방산, 조선, 철강, 반도체, e(이)모빌리티, 세라믹 등 첨단 제조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핵심 요소기술이다.

국내 레이저 산업은 광학 핵심부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우주방산용·정밀제조용·원전제염용 고출력레이저 실증센터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핵심 광학부품·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조성도 병행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는 국내 레이저 관련 기업 50여 개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 지원을 연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광주·전남이 국내 고출력레이저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사천시, 농지 이용실태 정밀 점검

내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

경남 사천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유휴화 방지를 위해 '2026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전국 단위로 추진되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기간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뉘며,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사천시의 조사 대상은 총 5만9089필지, 6144ha 규모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 영상, 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이용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어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운영 상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상속·이농인의 농지소유 상한 준수 여부 ▲농업회사법인 요건 충족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자경 및 임대차 적법성 ▲휴경 여부 ▲농지 이용·전용 행위 등이다.

/사천(경남)=김준한 기자

경주시, 문무대왕릉 성역화사업 본격화

내달 공원 조성 착공

경주시가 문무대왕릉 성역화사업의 핵심 공정인 공원조성 사업 착공을 앞두고 역사문화관광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문무대왕면 봉길리 84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이 다음달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문무대왕릉 일원의 역사문화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광객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에는 내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245억원, 도비 52억5000만원, 시비 52억5000만원이다.

주요 사업은 문무대왕 유조비 건립을 비롯해 주차장과 공원·조경시설 조성,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해안선 정비 등이다.

또 토지 27필지와 가옥·점포 25호에 대한 매입도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률은 90% 수준이다.

경주시는 앞서 2014년 문무대왕릉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0년 12월 문무대왕 유조비를 설치했다. 이어 2021년 3월 국가유산청 승인을 거쳐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했으며, 해안침식 정비공사와 주차장 조성사업도 마무리했다.

시는 사업 구간 주변 가설울타리 설치도 함께 추진해 공사 안전관리와 현장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역사성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구미 전역 잇는 '맨발길 네트워크' 구축

40억 투입해 산책로 14곳 조성

구미 지산샛강 맨발길

경북 구미시가 추진해 온 14곳의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다.

시는 2023년부터 40억원을 들여 구미 전역 14곳, 13㎞ 규모의 맨발 산책로 길을 모두 완성했다고 밝혔다.

지산샛강생태공원, 형곡공원, 산동우항공원에 이어 최근 고아 들성산림공원, 송정 철도변 도시숲, 임은동 시설녹지까지 개통되면서 도심 전반을 잇는 맨발길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총 3.4㎞에 달하는 지산샛강 생태공원 맨발길은 계절별 풍경이 뚜렷한 구미 대표 도심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 봄 벚꽃과 여름 연꽃, 가을 억새, 겨울 큰고니까지 사계절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지산샛강 생태공원 방문객은 28만명으로 하루 평균 770명이 찾는 대표 휴식 공간으로 성장했다.

들성산림공원은 숲속에서 맨발 걷기와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권역별 맨발길이 모두 연결돼 시민 누구나 쉽게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구미(경북)=김준한 기자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해외지사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부산시는 다음 달 1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2026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기 침체 속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지사·긴급지사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지사화 사업에 선정될 시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현지 지사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시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현지 출장 및 인허가 취득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시
타이베이 박람회 콘텐츠 '대상'

경북 포항시는 지난 22~25일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2026년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TTE)'에서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해 해외 관광 마케팅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는 '제2회 한국여행 엑스포'와 동시에 열려 포항시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관광 박람회에 참가한 포항시는 개별 여행(FIT) 중심으로 바뀌는 대만 관광 수요에 맞춰 해양 경관과 야간 관광, 체험형 콘텐츠를 소개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부산시
'BTS 투어' 대비 바가지 단속

부산시가 내달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인(IN) 부산'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특별단속과 공공숙박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숙박업소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관광불편신고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민원이 접수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공조해 조세 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금련산·구덕 청소년수련원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등을 공공숙박시설로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 452명 예약을 모두 마쳤다.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도 기존 숙박요금을 유지하는 '착한 요금' 정책을 시행하며 전 객실 예약이 완료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길천2차산단에 '도시숲' 조성

울산시는 총 7억원을 투입하여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 내 유휴 녹지공간에 약 8700㎡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청 지원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돼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해당 부지에 1022그루의 수목을 심어 도시숲을 조성한다.

도시숲 조성으로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 탄소 흡수원 확충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울산=이도식 기자